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24일(월) 총 9 매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담 당 자	• 문화정책담당 채경식 ☎440-4011 • 담당자 박경지 ☎440-4016	
담당 부서	해양항공과	담 당 자	• 해양기획담당 서미숙 ☎440-4821 • 담당자 윤이경 ☎440-482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항공·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 '집중'

- 24일 문화관광·해양항공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 '항공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통해 일자리 창출 극대화 -
 - 청년·지역예술인 안정적 활동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항공·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에 집중해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마련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특히 인천 미래먹거리의 한 축인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틀을 갖추고 있는 항공정비산업(MRO)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1월 24일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문화관광·해양항공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시는 항공산업 분야와 관련, ‘인천형 일자리’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새로운 ‘항공산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주력해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경제를 이끌어왔던 내연기관(자동차) 중심의 제조산업을 재편해 이와 유사한 항공MRO 분야로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예산확대와 지원 조직 정비를 통해, 올해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스라엘 IAI사의 항공 개조사업, 미국 아틀라스항공의 중정비 센터, 항공기의 심장인 엔진을 정비하는 대한항공 엔진정비클러스터를 유치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일자리 공급-일자리 안정화-일자리 재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이 분야에서만 최대 3,000개의 직접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지역 예술인들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예술 활동의 안정화’를 도모,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함께 지역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고 청년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작과 전시·발표, 교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지원’, 청년예술가·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청년문화축제 지원, 민간 문화시설 공연 지원 등 ‘문화향유’를 제공해 청년예술가들의 공연기회 확대, 시민들에게는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과 지역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 “영종에 항공정비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항공산업 추진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해양항공·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서는 UAM(도심항공교통)과 해양 산업·환경 문제, 문화·관광 일상회복 등이 화두로 올랐다.

우선 해양항공 업무보고에서 시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UAM(도심항공교통)에 대해 선도·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기업 발굴과 UAM 플랫폼 구축·분석 및 기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바다를 기반으로 둔 ‘환경특별시 인천’인 만큼 해양생태계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해양환경과’도 신설했다.

시는 신설 부서를 중심으로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 생태계 보전관리 △연안·섬 지역 해안 정화 활동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해양 생태계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도 신설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시민여러분께 깨끗한 바다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분야에 ‘일상회복’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문화·관광 일상회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예술인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안정된 삶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시는 문화·관광분야에 전통적인 대면 영역과 새로운 비대면 영역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트랙’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문화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천뮤지엄파크를 비롯해 인천도서관, 검단신도시 박물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옛 인천우체국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 등을 활용, 근대문화유산 복합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관광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관광분야 육성을 위해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인프라를 활용, 인천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신규 XR 응용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문화·관광분야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최근 관련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이나 디지털 현실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영역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우리도 인천의 문화·관광이 전통적인 대면영역과 새로운 비대면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트랙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문화관광·해양항공국 2022년도 10대 과제
2. 문화관광·해양항공국 2022년도 업무보고 요약본(별첨)

붙임1

문화관광국 2022년도 10대 과제

①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는 시민 문화일상(핵심)

-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
 - * (축제) ▲ 펜타포트음악축제(8월), ▲ 디아스포라 영화제(5월), ▲ 인천영화주간(10월)
 - * (문화·관광) ▲ INK(9월), ▲ 포크페스티벌(6월), ▲ 주섬주섬음악회(7월), ▲ 시민의 날 문화행사(10월)
 - * (생활·독서문화) ▲ 시민문화예술교육, ▲ 동아리활동 지원, ▲ 스마트도서관·북드라이브, ▲ 인천독서대전(10월)
 - * (문화유산) ▲ 문학산음악회(5,9월), ▲ 문화재야행(9,10월), ▲ 전통문화예술대축제(10월)
 - * (게임) ▲ 글로벌 인천이스포츠헤럴리(7월), 인천이스포츠헤럴리 스퀘리그(8월), ▲ 인디게임 아카데미(11월)

② 청년예술인 육성과 청년 문화향유 저변 확대(핵심)

- (공간지원) 청년들의 창작, 전시·발표, 교류공간 제공
 - * ▲ 청년 점.점.점(공간과 프로젝트 매칭), ▲ 청년문화창작소(창작거점), ▲ 청년극장(공연, 발표)
- (활동지원) 청년예술가·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기회 제공
 - * ▲ 청년문화활동가 지원(100명), ▲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100개팀), ▲ 신진예술가 기획지원
- (문화향유) 청년들이 만들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문화생활

③ 지역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정책 추진(핵심)

- (창작지원) 지속가능한 예술창작활동으로 직업적 안정성 확보
 - * ▲ 인천형 예술인 지원 ▲ 예술표현 활동지원(장르별)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인천음악창작소 개소
- (생활안정) 창작과 삶의 균형을 위한 예술인 경제적 지원
 - * ▲ 예술인 창작공간 등 임대료 지원 ▲ 인천예술인e음카드 혜택(추가 캐시백 5%) 등
- (권익보호)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및 예술인 자생력 강화

④ 메타버스 기반 인천형 콘텐츠산업 육성(핵심)(뉴딜)

-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인프라(3차원 XR 공간정보) 활용 인천 콘텐츠 기업 대상 신규 XR 응용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관광 등 7개 분야, 5개사, 10억)
- VR·AR플랫폼(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연계, 인천형 XR산업 육성
 - * ▲ XR 실증 개발지원(8개사), ▲ 퍼블리싱 지원(8개사), ▲ XR 인력양성(60명), ▲ 메타버스 제작지원(4개사)

⑤ 관광 재개 준비와 재도약하는 인천 관광(핵심)

- 관광수요 회복 대비 新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로컬 콘텐츠 발굴
 - * ▲ 인천 관광재개 캠페인 추진(225억), ▲ 섬·생태·친환경, 위케이션(일+휴가) 관광 상품(3.8억)
- 차별화된 인천의 대표 관광지 육성 및 관광객 친화환경 조성
 - * ▲ 핵심관광명소(10억), ▲ 웰니스 관광지(5억), ▲ 열린관광지 조성(20억), ▲ 스마트 관광기반구축(1.3억)
- 관광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및 ESG 경영 지원

⑥ 위드코로나 시대 마이스산업 지속성장 동력 마련(핵심)

- 마이스업계 회복지원 및 일자리 사업(창업, 청년인턴십) 추진
- 국내·외 중대형 컨벤션 전략적 유치
 - * ▲2023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대형 컨벤션
- 시 전략산업 연계 전시·이벤트 적극 발굴 및 육성
 - * 바이오, 뷰티, 로봇 등 인천 8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이벤트 개최지원 확대
- 해외박람회 및 로드쇼 등 참가를 통한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⑦ 시민 생활밀착 독서문화 향유기회 확대(핵심)

-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지속 추진을 통한 독서인프라 개선
 - * ▲(조성) 공공·작은도서관 건립(7개소, 82.2억) ▲(환경개선)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등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및 장서확충 지원(4.8억), 스마트도서관 조성 지원(3개소)을 통한 근거리 독서문화 활성화

⑧ 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향유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핵심)(공약)

- 행안부 중투심 조건부 통과(‘21.6)로 인천뮤지엄파크 본격 조성
 - * ▲조건부 승인 후 행정단계 이행, ▲시립미술관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22.6)
- 인천도서관(가칭) 중앙투자심사 통과(‘22.2), 검단신도시박물관(가칭) 건립(‘21~’25)
- 근대문화유산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
 - * ▲구인천우체국 매입 및 활용(市 유형문화재 제8호), ▲신흥동 옛 시장관사 개방(‘22.7.)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22.9.~’24.8.), 인천음악창작소(‘22.8.~)

⑨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핵심)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22) 결과를 반영한 역사문화유산 종합관리방안** 마련(‘23)
 - * 역사문화자원 목록화를 통한 유형 분류 및 미래유산제도 도입 검토 등
 - ** DB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활용방안 등 가이드라인 제공

⑩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핵심)(협업)

- 우리민족 최초의 공식 이민 출발지* ‘인천’에서 한국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과 하와이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 *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주를 위해 1902.12.22. 이민자 121명 인천항 출발
 - **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 ▲코리아페스티벌 인천 유치 연계 행사규모 확대, ▲디아스포라 사진, 미술 전시 등 문화행사, ▲세계도시거리 이정표 제작, ▲디아스포라 120년 영상제작 등

붙임2

해양항공국 2022년도 10대 과제

① 함께 배우고 즐기는 바다! 해양교육문화 활성화(핵심)(협업)

- 해양교육문화협의회 구성 및 시민,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교육 실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교육문화 시책발굴
 - * 인천의 해양역사, 해양환경, 해양기후, 해양과학 등

②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있는 해양도시 건설(핵심)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인천신항, 아암물류2단지 先 추진)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추진(‘22~’28) 및 물동량 증대, 항로 신설 기업 인센티브 지급(2,818백만원)
 - * (대상구역) 10만㎡, 유휴 항만시설 / 인천 남항(SICT, E1CT) 유휴 부지
-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주변확대 사업
 - * ▲카약계류장 확장(북도면), 요트계류장(소야도), 마리나 해상 정박시스템(소야도, 소이작도)
 -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2개소)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추진

③ 백령공항 건설 및 항공산업 허브 조성(핵심)(뉴딜)(공약)

- 백령공항 예타 대상사업 평가(‘21.12.~) 및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22.~)
-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제 고도화
 - * ▲MRO기업 유치, ▲인천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항공산업부품 공급기업 발굴
 - ▲기업육성 및 지원(인증획득지원, 절충교역 컨설팅 지원 등)
- 인천형 항공산업 교육훈련 체계 확충
 - * ▲항공정비 공동교육훈련센터(인천공항), ▲고교생 항공정비 교육센터(정석항공고)

④ 인천 섬 주민 시내버스요금으로 여객선 이용 지원(핵심)

- 섬지역(연륙섬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주민
 - * (대상) 강화·옹진 25개 섬 14,587명
 - (이용금액)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 / ‘22. 3. 1. 시행

⑤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강화(핵심)(뉴딜) 환경특별시

- 전담부서(해양환경과) 신설을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등 역량 집중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준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22.2~7.)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 용역('22.2.~'23.7.)

⑥ 달린 바다를 열어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해양친수공간 조성[핵심]

-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 및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 * 호안상부 방파벽 철거(유리벽 난간으로 대체), 휴게쉼터 조성
 - ** 연안여객터미널 역무선 주변 방파제 상부 폭을 확장을 통한 인천대교 등 해안경관 감상·조망
- 해수욕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해안길 조성 사업*
 - * ▲장경리~농어바위('23.12.), ▲십리포('23.12.), ▲선재도 냇출항~드무리해변('24.12.)

⑦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협업]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에 따라 이주 지원* 추진
 - * ▲항운·연안@ 활용계획 수립('22.12.), ▲시의회 동의('23.2.), ▲주민 협의 등 교환 사전 준비
→ ('23.) 북항토지(市)-이주부지(해수부→市)-아파트(주민) 교환 ※ 차액은 주민 부담

⑧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어촌·어항 활성화[핵심]

- 항·포구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총사업비 1,169억원, 11개소)
 - * ('20~'22) 준공 완료 / ('21~'23) 시행계획 수립 및 착공 / ('22~'24) 투자심사 및 기본계획 고시

< 대상사업 >

- | | |
|---|---------|
| ▪ ('20~'22년) 5개 소(서구 세어도항, 강화 창후·황산도항, 옹진 장촌·자월2리항) | / 479억원 |
| ▪ ('21~'23년) 3개 소(종구 삼목항, 강화 초지항, 옹진 서포리항) | / 301억원 |
| ▪ ('22~'24년) 3개 소(종구 덕교항, 강화 외포항, 옹진 두무진항) | / 389억원 |

⑨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핵심]

-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등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거래 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확대 및 원산지 표시 지도
 - * 조사건수 ('21.) 175건 → ('22.) 200건 / 조사항목('21.) 42종 → ('22.) 50종(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